



〈폴발위의 점심 식사〉-1863년, 캔버스에 유채, 208*264,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현실을 화폭에 그린 최초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

[박 재 형]

미술사에서 근대 미술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화가가 에두아르 마네다. 역사나 신화를 주제로 표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표현한 마네는 새로운 미술을 열기 위해 의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술사적으로 선구자 역할을 한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

마네의 작품 중 인상주의 출현을 예고하는 작품이 〈폴발 위의 점심 식사〉다. 이 작품은 파리 근

교의 숲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마네는 이 작품으로 인해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다.

남자들 사이에 나체의 여성이 당당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풀밭 위에는 점심 도시락과 여자의 옷가지가 널려 있다.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평범한 일상을 그린 것이지만 별거벗은 여성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 작품이 당시 비평가는 물론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누드보다는 남자들의 옷차림 때문이었다. 남자들은 당시 유행하는 옷차림을 한 부르주아들이었다. 그것은 비도덕적인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외설 시비에 결정적인 역할 해주었다.

남자들은 마네의 두 형제들이며 화면 정면에 앉아 있는 별거벗은 여인이 빅토리아 퇴락으로 그녀는 전문 모델이다. 빅토리아 퇴락은 관람객을 향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남자들과 뒤로 보이는 여자의 시선은 관람객들을 외면하고 있다. 풀밭 위에 흩어져 있는 여자의 옷가지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암시한다.

이 작품은 살롱전에서 낙선했지만 살롱전에 입상한 다른 어떤 작품보다 유명해졌다. 1853년 살롱전에서 심사위원들은 5000점의 출품작의 가운데 3분의 2정도의 작품을 낙선했다. 살롱전이 구태의연한 방식의 심사로 대규모로 낙선했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낙선작 대부분은 젊은 화가들의 작품들로 젊은 화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해 심사위원회에 빗발치게 항의했다. 그것을 보도한 언론 때문에 살롱전은 사회 이슈가 되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나폴레옹 3세는 700여점의 낙선작들만 모아 전시를 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낙선작 전시회’다.

이 전시회에 대중들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시회에 출품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라는 작품을 보고 관람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낙선작 전시를 명령했던 나폴레옹 3세도 짐작지 못한 작품으로 평했다.

마네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티치아노의 〈전원의 합주〉 작품의 구도를 차용했다. 하지만 티치아노의 작품이 여신을 그렸다면 〈폴발 위의 점심 식사〉는 현실 속의 여인이었다. 당시 여성의 누드화는 신화나 역사화에서나 가능했다.

남자들의 옷차림으로 인해 여인이 매춘부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삶속에 있는 매춘부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 작품을 대중들은 전시장에서 본 것에 당혹감을 느꼈다. 마네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19세기 파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1852년 쿠데타 이후 나폴레옹 3세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파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초라했던 가난은 파리 정비 사업과 함께 도시 건물 뒤로 사라지고 카페와 극장 등장하면서 도심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시기에 파리는 무희나 고급 매춘부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고급 매춘부는 물론 세탁부, 점원, 모텔 등 사회 하류층 여자들이 아르바이트로 매춘을 해서 돈을 벌었고 마네는 매춘들이 넘쳐흐르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다.

마네는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다. 명예를 얻기 바라던 마네는 당시 유행하던 스페인 풍으로 그림을 그린다. 나폴레옹 3세가 스페인 출신의 왕비를 맞아들이자 파리에서는 스페인 양식이 유행을 한다.

마네는 스페인 풍취가 묻어나는 작품으로 살롱전에 입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살롱전의 성공은 마네로 하여금 동시대에 가장 전도유망한 신인 화가로 등극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영광의 길로 들어섰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부르주아 출신답게 시류를 거스르는 것도 싫어했다.

하지만 빅토리안 피랑을 모델로 한 〈올랭피아〉로 인해 20년간 추문에 휩싸이게 된다. 마네는 어떠한 비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롱전에 계속 출품하면서 화가로서의 성공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랭피아〉는 마네에게 파렴치한 화가라는 유명세뿐만 아니라 그 작품 이후에 출품하는 다른 작품들이 살롱전에서 계속 낙선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마네는 비난을 받고 있어도 확신하고 있던 예술성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말년에 마네는 살롱전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마네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주제인 파리의

삶을 표현했기 시작했다. 마네는 자신이 즐겨 찾았던 카페, 술집 등 파리의 밤 문화와 아르장퇴유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등 파리의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아낸다.

마네가 즐겨 찾았던 카페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카페 콩세르의 구석〉이다. 이 작품은 당시 유행했던 뮤직홀 콩세르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콩세르는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자주 들렀던 곳으로 여자들은 혼자 출입할 수 없었던 곳이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가 파이프를 입에 문채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를 바라보고 있고 왼손으로 두 개의 맥주잔은 든 여자 종업원이 오른손으로는 탁자에 맥주잔을 놓고 있다.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그녀의 시선과 두 개의 맥주잔은 바쁜 종업원의 일상을 나타낸다.

이 작품에서 푸른색의 옷은 노동자를 나타내며 중절모를 쓴 남자는 회사원을 의미하며 그 앞에 앉아 머리만 보이고 있는 여자는 매춘부를 암시한다.

〈카페 콩세르의 구석〉-1879년, 캔버스에 유채, 98×79,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콩세르 카페를 자주 찾았던 그는 여종업원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한손으로 맥주 여러 잔을 똑바로 들고서도 쏟지 않고 다른 손으로 손님에게 맥주잔을 능숙하게 놓는 것을 감탄해 콩세르에

서 가장 잘하는 여종업원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해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여종업원이 마네에게 보호자가 있어야만 모델을 할 수 있다고 고집해 그녀의 남편을 모델로 푸른색의 옷을 입은 남자를 했다.

마네는 병마와 싸우면서 제작한 이 작품을 리옹 미술전에 출품한다. 마네가 자신의 생활을 담은 혁신적인 방식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마네를 쫓아 사생활을 담기 시작한다.

에두아르 마네(1832~1883)는 판사였던 아버지가 법률 공부를 하기 원했으나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마네는 선원이 되기로 한다. 하지만 마네는 6개월 동안의 견습 선원 생활 끝에 파리로 돌아온 마네는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게 된다. 그는 화실뿐만 아니라 미술관에서도 그림을 배워나갔다. 또한 마네는 화실에서 배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배워나갔던 것이다.

그림을 공부하면서도 부르주아 출신의 마네는 가난한 미술학도들 사이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우아하고 사교적이었던 마네는 대중과 화단 모두에서 사랑받는 사회 명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전통을 숭배해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꿈을 키웠다. 전통을 중시했던 살롱전에서 성공을 기원하며 거장들의 작품에 심취한다. 하지만 마네는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고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을 더 좋아해 전통적인 기법과 멀어진다.

마네는 당시 젊은 화가들이 열광하던 인상주의 양식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자신이 인상주의 화가로 속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표현 방식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 마네는 야외에서 자연스러운 빛을 탐구하기보다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겼으며 자신이 좋아하던 흑백을 함께 구사하는 방식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형태와 인물의 윤곽선을 확고하게 그렸다. 또한 주제 면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네는 근대적인 삶의 순간을 자연스러운 붓질로 과감하게 표현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리더가 되었다. 마네는 말년에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매독으로 건강을 해쳐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야 했다. ☹